귀농귀촌 사전준비에서 정착까지 총 망라

농식품부, 16개 과제 담은 제2차 종합계획 발표

준비 커뮤니티 지원 · 지자체 일자리 특화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 사전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6~2020) 연평균 49만 2,000여 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귀촌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촌지역 환경·생활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1차(2017~2021)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 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귀농 5년 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를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게 중점"이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준비 지원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농촌 체험·교육 강화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지역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지자체의 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

◇귀농인 영농활동 밀착 지원 = ▲ '영농 네비게이터' 통한 영농 초기 컨설팅 ▲청년 귀농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및 농지 우선 제공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임대주택·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 강화 /최대희 기자

해양수산투자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는 전북도내 우수한 해양수산 기술, 소재 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이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지역별 센터 공모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지원사업으로 우수한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전라북도 예비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해 창업·성장·고도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육성을 위한 이번 지원사업과 더불어 전북도 내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마케팅, 기술개발, 창업,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외에도 질의응답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1대1 상담회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최대희 기자

킬레이트-미생물제 통합 기술 개발

염류농도 12% 줄고 토양 미생물 20.2% 늘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시설재배지에서 문제가 되는 염류 장해 해결을 위해 기존에 개발한 킬레이트제와 미생물제를 통합해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4일 농진청에 따르면 시설재배지에 염류가 쌓이면 작물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토양환경이 나빠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개발한 기술은 염류를 작물이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 작물의 흡수 이용률을 높이고, 토양 염류는 줄이는 킬레이트제와 염류에 대한 내성을 높여 뿌리 활착과 작물 생장을 돕는 미생물제를 합쳐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 방법은 우선 찬물 5L에 10아르(a)당 투입해야 할 수산화칼륨 240g과 킬레이트제(DTPA) 680g을 녹인 다음 물 5톤이 들어있는 관수통에 넣어 희석한다. 여기에 농가가 사용하던 비료량의 절반을 넣고, 미생물제(메소나) 1L를 섞은 뒤 관수한다.

충남 천안의 멜론 농가(100평)에 기술을 적용한 결과, 토양 환경이 좋아지고 염류에 대한 내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물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가 추정 수익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토양의 염류농도(전기전도도)는 12%(6.85 데시시멘스퍼미터(dSm-1) → 6.02) 줄었으며, 토양 미생물 활성은 20.2%(4.45 FDA 수화도(㎍ FDA g-1 min-1) → 5.34) 늘었다.

또한, 염류에 대한 내성 지표인 광화학 반사 지수는 기존보다 22.3% 늘었고, 킬레이트제나 미생물제를 단독 처리했을 때보다 각각 5.7%, 2.6% 향상됐다.

식물체 지질 산화도는 63.9% 줄어 작물이 염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킬레이트제나 미생물제를 단독 처리했을 때보다 각각 24.8%, 7.4%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멜론 무게는 기존보다 42% 늘어 킬레이트제나 미생물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각각 18%, 20% 증가했다. 농가 추정 수익액은 10아르당 117만원 증대됐다.

이번 결과로 농진청은 개발한 킬레이트제-미생물제 통합 기술을 영농기술로 실용화했으며, 내년 농가 현장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제안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4일 농협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윤리경영 실천 결의로 청렴문화 조성

전북농협,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전개 · 전 임직원 준법 자기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4일 농협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 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전북농협은 매월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전개, 전 임직원 준법 자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전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전북농협 핵심사업인 스마트농업 확산, ESG경영,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등 농업·농촌의 혁신과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 전 임직원은 법령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일미칠근의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할 것"이라며 "청렴농협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북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JB카드 '백일동행'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5월 31일까지 개인카드 고객 대상 JB카드 '백일동행(同行)' 이벤트를 시행한다.

지난 4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JB카드를 이용하는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응모전 100일과 응모후 100일의 이용액을 비교 후 추가 이용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만원 캐시백, 300만원 이상 3만원 캐시백, 500만원 이상 사용 시 5만원 캐시백 행사를 시작한다. 단 응모전 100일 이내 개인카드 신규 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7월 31일까지 SSG계열 카드를 포함한 JB신용카드를 대상으로 무이자할부도 진행한다. 전 가맹점 대상 2~3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대학등록금 등 주요 10대 업종 대상 2~5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및 6~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취업 전 '교육' · 후 '지원'

전북일자리센터, 청년 맞춤형 취업 패키지사업 추진

전라북도와 전북일자리센터(센터장 이현웅)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준비부터 취업 후 안정적인 정착까지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취업 패키지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50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1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좋은 성과로 나타났으며 참여 만족도까지 높아 올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단계별로 원스톱 맞춤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알선 및 컨설팅 ▲구직활동비 지원 ▲재직자 정착교육, 취업 성공정착 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 순으로 총 4단계로 구성돼있다.

우선 취업역량 강화교육은 구직자의 취업 의지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으로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라 볼 수 있다.

취업역량 강화교육으로 면접스킬, 이미지메이킹 교육 등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취업알선 및 컨설팅 단계에서는 실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입사지원 및 면접컨설팅,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서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가장 애로사항인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8회 구직활동 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입사지원 증빙서류 확인 후 실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 단계는 취업 후 안정적인 근속을 위한 재직자 및 기업 지원 단계로, 청년에는 3개월 근속 시 성공정착금 30만 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체력증진·문화예술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에는 더 나은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이해와 조직 생활 적응을 위한 네트워킹 교육 등 직장 내 적응을 도와주는 과정도 준비 돼 있다.

사업 참여자격은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을 마친 만 18~39세 미취업자이며, 총 70명을 모집한다. 사업신청·접수는 오늘부터 전라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현웅 센터장은 "작년의 높은 관심과 성과에 이어 올해도 청년취업 희망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북일자리센터가 도내 청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올 전북 천년명가 육성 참여업체 모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도내 30년 이상 우수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2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 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홍보와 마케팅, 경영지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지속가능경영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도박·향락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북천년명가' 로 선정되면 3년간의 관리기간을 갖고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최대 5천만 원), 인증서 및 인증현판, 홍보영상 제작 및 TV방송 홍보, 전북투어패스 연계 관광상품화, 전담멘토의 맞춤형 1:1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받는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현재 30업체가 지정됐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업체는 다각도 평가를 통해 엄선해 '전북천년명가' 로 선정된다. 한 분야에서의 대표자의 역량,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안정적인 경영과 가업승계, 지속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최대희 기자

2월 전북 소비자물가 3.6%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불안 요인으로 작용

2월 전북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해 10년만에 4%대 진입 우려감에 휩싸이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대외변수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물가에 대한 상승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7(2021년=101.59)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6% 각각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에서는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8% 각각 하락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5.6% 각각 상승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0%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에서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교통(2.0%), 기타상품 및 서비스(1.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0.6%) 부문 등은 상승했고, 오락 및 문화(-0.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2%) 부문은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교통(9.2%), 음식 및 숙박(5.6%), 기타상품 및 서비스(4.7%) 부문 등 대부분 상승했고, 하락한 부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3% 각각 상승했다. 전월대비 등락 품목은 돼지고기(-2.8), 쌀(-2.5), 상추(-7.7), 당근(-7.8), 커피(-1.0) 등이 하락했고, 휘발유(5.6), 경유(6.5), 커피(외식)(3.6), 빵(1.2), 풋고추(20.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하고, 전년동월대비 2.6% 하락했다. /최대희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슬기로운 전북여행' 참여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전라북도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전북여행' 휴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객실 이용 고객은 1인당 1만원씩의 숙박비를 지원받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유선으로 객실을 예약한 뒤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 여행일 1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이번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개월에 1박에 한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리조트는 최근 전면적인 객실 리모델링으로 더욱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총 13개 동 974실 중 8개 동 601실을 새로운 디자인 및 비품으로 교체 설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부산림청, 2050 탄소중립 첫 나무심기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일 전남 고흥에서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고흥군, 산림조합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난대상록활엽수의 대표 수종인 황칠나무 1,500그루를 심었으며, 앞으로 서부청 관내 5개 관리소 495ha의 국유림에 경제림 332ha, 큰나무공익조림 60ha, 산림재해방지조림 33ha 밀원수림 34ha, 미세먼지저감조림 36ha 등 13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특히 서부청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미래 숲 자원조성을 위한 테다소나무 시범조림과 난대수종 조림확대 가능성 조사를 위한 난대수종 시범조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조림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